

교실 수업 질적 도약 이끈다

전북교육청, 중등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 운영 ‘해봄 → 성장 → 이룸’ 3단계 인증 체계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실 수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 교사 '중등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평가 혁신을 주도하고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3단계 인증 체계를 도입, 수업전문성 육성을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교육청의 고유 정책이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성을 단순한 연수 이수가 아닌 실제 수업 개선과 학생 변화 중심의 실천 역량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는 '수업혁신 해봄교사 → 수업혁신 성장교사 → 수업혁신 이룸교사' 3단계로 구성됐다. 연구활동, 수업나눔·수업성찰, 수업 참관·컨설팅, 수업혁신 지원단 활동 등 1년 단위로 활동 실적을 심사한 뒤, 학기 말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수업사례 공모나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체계적·단계별 성장 지원, 실천 기반 평가 및 인센티브를 병행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인증 받은 교사는 교내의 수업 나

눔·수업자료 개발·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활동비 지원을 비롯해 연수 참여, 수업혁신 지원단 및 정책 자문단 참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는 첫 단계인 '수업혁신 해봄교사'와 2년차 '수업혁신 성장교사'를 선발해 각 인증 단계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업나눔 박람회 참여를 의무화해 성과 공유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교실 수업혁신은 정책이 아닌 교사가 주도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단계형 인증제를 바탕으로 전북형 교실혁명 모델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생의회와 전남학생의회가 지난 15~16일 제2회 청소년박람회가 열린 군산에서 '전북·전남 학생의회 의정활동 교류' 행사를 가졌다.

전북·전남 학생의회, 청소년박람회서 ‘화합’

의정활동 교류 행사 가져... 총 45명 참여

전북학생의회와 전남학생의회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2회 청소년박람회가 열린 군산에서 '전북·전남 학생의회 의정활동 교류' 행사를 가졌다.

"학생이 이끄는 변화, 전북과 전남이 이어갑니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전북학생의원 17명, 전남학생의원 16명, 지도교사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

부스체험 △진로콘서트 △청소년 아트페스티벌 △친교와 의정활동 나눔 한마당 △군산 역사 및 생태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의정활동 나눔한마당에서는 각 지역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학생의회 박건우(화순군) 의장은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참정권 교육, 학생자치 활성화와 같은 공동된 문제를 고민하는 두 학생의회가 머리

를 맞닿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학생의회 김수호(부안 서림고) 의장은 "전남학생의회와 함께한 이번 교류는 서로의 활동을 돌아보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변화가 지역과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교류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브릿지 캠프 사전교육 분임별 프로젝트 과제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브릿지 캠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교육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8명과 인솔교사 4명이 참석했다.

이에 캠프 참가자들은 사전연수를 통해 미국 워싱턴주 소개와 현지에서 수행할 분임별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 안내받았다.

특히 미국 워싱턴주 출신으로 서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에밀리 타일러 교환학생이 강사로 참여해 미국 문화와 생활 정보를 설명했다.

참가 학생들은 3개 분임으로 나눠 우리문화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공동수업 준비 등 사전 과제를 수행하고, 해외 체류 중 유의사항과 안전교육도 받았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생들이 연수 전부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함으로써 캠프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사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정밀 반도체 열응축 난제, 열관리 핵심소재 기술로 ‘실마리’

전북대 김성륜 교수팀, 전자기기 내부 열 효과적 전달 · 방출 신소재 개발

전북대학교 김성륜 교수팀(유기소재첨가공학과)이 전자기기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방출할 수 있는 소재기술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교수팀은 질소와 붕소의 화합물인 '질화붕소(Boron Nitride)'를 1차원 및 2차원 구조의 하이브리드 필러로 활용해 열 계면 재료(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새롭게 제작했다.

개발된 소재는 향상된 열 전달 구조인 '나노 인터커넥션(nano-interconnections)'에 의해 10.93 W/(m·K)라는 높은 수준의 열 전도 성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소재와 비교해 전자기기 내부의 열이 더 빠르고 고르게 방출될 수 있게 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 교수팀은 고성능 방열 소재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이론 모델도 제시했다. 'Hybrid thermal percolation model'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필러



기반 고분자 복합소재의 열적 향상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연구 성과는 과학 기술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Small Methods' (영향력 지수 10.7)에 최근 게재됐다.

김성륜 교수는 "최근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집적화로 공정의 고도화로 인해 기기 내부에 축적되는 열이 전자 장치의 성능 저하 및 수명 단축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된 열 관리 소재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도 열은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LED 패키징과 고성능 서버 시스템 등 소자 내의 방열 특성 확보가 핵심인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전북대 장승연 석사과정생(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과 철원 플라스마산업기술연구원의 장지운 선임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김재우 박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20일

김영하 작가 초청 특강 개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1층 중도 라운지에서 김영하(사진) 작가 초청 '소설 속 세계'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소설가 김영하와 함께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라는 주제로 소설이라는 낯선 세계 속에서 '왜 우리는 소설에 매료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했다.

김 작가는 소설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등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인기 TV 프로그램 '알쓸신잡' 등에 출연했다.

사전접수 150명, 현장 접수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학생 및 지역주민과 문화적 만족감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20일 오후

아름다운 동행 힐링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동행'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악과 클래식 아름다운 협연으로 바쁜 교육현장에서 지친 교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티켓은 1인 2만원으로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콘서트의 티켓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해 교육적 연대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은 결국 사람을 향한 연대"라며 "이번 콘서트가 음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 세이브더칠드런 새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눔과 돌봄, 환경 및 주거개선 등 공익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주대 e-복지관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세이브더칠드런새움센터와 협력해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

마음건강 회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펼쳐 왔다.

상반기에는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정서 회복 활동, 건강 교육 등 다면적인 접근을 진행할 계획이다.

e-복지관 오다인 관장은 "청소년의 발달권은 단순한 신체관리 차원을 넘어 정신적 회복과 정서적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기업 대상 역량강화 캠프

비즈니스 전략 등 실전 교육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최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5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캠프 'Nice to meet-up'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전북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올해 첫 프로그램이다. 예비창업자부터 초기·도약 단계의 창업기업까지 총 7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완결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권역 내 창업기업 50개사,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10개사, 생애 최초 예비창업자 10개사 등 총 70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경영 시뮬레이션 특강, 단계별 투자 가이드, 사업비 사용 지침 등 초기-도약 단계의 창업기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1층 현관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청렴라떼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교육지원청, ‘함께해요, 청렴라떼 캠페인’ 전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지난 16일 1층 현관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청렴라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과거 경험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나 때는 말이야' 말 대신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라떼'를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교육장 및 국장, 과장 등 부서장들이 출근길 직원들에게 따뜻한 '청렴라떼'를 나누며 인사했고, 청 직원

들은 '청렴라떼'를 마시며 존중과 배려의 청렴한 조직문화에 대해 세대공감을 함께하며 청렴감수성을 높였다.

또한 행사 부스에 '청렴 QR코드'를 게시,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 캠페인의 의미를 높였다.

실문소사를 통해 △삼호준중 언어 사용하기 △물리적, 심리적 선 지키기 (갑질, 성희롱 예방) △세대공감 리더 되기 △눈치 보지 않는 휴가 사용하기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장은성 기자